

# 자살자 92% 경고신호 보냈지만 가족들 인지 못해

## 복지부, 심리부검 결과 발표 ... 자살유가족 지원 강화

자살사망자 10명 중 9명은 자살 전 주변에 경고신호를 보냈으나, 유가족의 대부분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2015~2017년 자살사망자 중 289명의 사례를 조사한 '심리부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심리부검이란 자살사망자의 유가족 진술과 기록을 통해 사망자의 심리행동 향상 및 변화를 확인해 자살의 구체적인 원인을 검증하는 체계적인 조사 방법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살사망자의 92.0%는 사망 전 '죽고싶다'고 말하거나 주변변리, 우울·불안 등 언어·행동·정서상태의 변화를 통해 자살징후를 보이는 '경고신호'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으로는 자살이나 살인, 죽음에 대한 말, 신체적 불편함 호소, 자기비하적인 말, 자살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 등을 했다. 행동적으로는 불면이나 과다수면 등 수면상태 변화, 과식이나 소식 등 식사상태 변화, 주변변리, 집중력 저하, 자해행동 등을 보

였다. 정서적으로는 죄책감, 무기력감, 과민함, 대인기피, 흥미 상실 등을 겪었다.

그러나 자살유가족의 21.4%만이 고인의 사망 전에 경고신호를 인지했다. 경고신호를 인지했다더라도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자살의사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등의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자살에는 삶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문제, 가족·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자살사망자의 스트레스 요인은 정신건강 문제(87.5%), 가족관계(64.0%), 경제적 문제(60.9%), 직업관련 문제(53.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유가족은 자살사건 발생 후 일상생활의 변화와 더불어 심리적·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족의 88.4%가 사별 후 일상생활의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우울, 불안, 초조, 공포, 불면증 등 정서상의 변화와 회피 및 단절 등 대인관계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유가족의 80.1%는 우울감을 느꼈으며, 이 중 27.0%는 심각

한 우울증에 해당했다. 일부 유가족은 수면문제(36.4%) 및 음주문제(33.8%)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가족의 63.6%는 고인이 자살로 사망했다는 것을 사실대로 알리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심리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월 수립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더욱 촘촘히 살피고 충실히 시행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자살유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경찰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장은 "가족·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이전과 다른 언어적·정서적·행동적 변화를 보인다면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및 자살예방 전문가에게 연결해야 한다"면서 "주변의 관심을 통해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혜진 기자 hjjo@koreanurse.or.kr

# 홍정혜 간호사업자문위원 별세

나이팅게일 기장 수상자인 홍정혜 간호사업자문위원(전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이 5월 12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발인은 5월 14일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으며, 국립이천호국원에 안치됐다. 유족으로 3녀가 있다.

고인은 세브란스간호대학(연세대 간호대학 전신) 재학 중에 6.25전쟁이 일어나자 학우들과 함께 부상자 간호활동에 자원했다. 경남중학교에서 양호교사(현 보건교사) 겸 영양교사로 활동했고, 강원도에서 가족계획사업에 협했다. 대한적십자사 보건부 차장을 지내며 가정보건강사 훈련, 보건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등에 헌신했다. 적십자간호대학에서 교수로 몸담으며 후학양성에 힘썼으며, 학장을 지냈다.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과 이사, ICN서울총회기법사업위원, 간호사업자문위원 등을 지내며 간호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1993년 제34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을 수상했다. 기장을 수상한 간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나이팅게일기장수상자회 회장을 지냈으며, 나이팅게일의 정신과 가치를 후배들에게 알리는



데 힘썼다. 연세대 간호대학이 지난 2006년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선정한 '연세간호 100년 히어로'로 선정된 바 있다.

고인은 생전에 후배 간호사들과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특강을 통해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에게 진지하고 심취한 간호를 해야 하며, 도덕성을 갖춘 전문직업인이 되어야 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떤 간호사가 될 것인지 미리 설계하고, 자신의 이상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라"고 격려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고인을 추모하는 조화를 빈소에 보냈으며, 한국나이팅게일기장수상자회에서는 근조기를 보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거점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시범사업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육지원을 위한 '거점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에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거점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시범사업자로 서울 노원구, 경기 시흥시, 인천 부평구 3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거점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보육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립·운영하는 근로자 친화적인 새로운 유형의 직장어린이집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주도하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

립을 지원해왔으나 행정부담, 장소 부족, 설치·운영비 부담 등이 이유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 정부와 자치단체가 직접 거점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전심사, 서류 및 현장실사,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목적의 적합성, 지역 보육수요, 기대효과 등을 심사기준으로 상위 3곳을 선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거점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2019년에 본격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최수정 기자 sjchoi@

### (1면서 계속)

여성 생애주기별 건강연구 기반을 확대하고, 여성 특이적 건강 위험요인을 발굴한다. 건강증진사업 내 젠더 지표를 마련하는 등 여성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정책을 강화한다.

평화·통일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분야 민간단체의 남북교류 추진과 여성단체의 평화·통일을 위한 심포지엄, 여성평화걷기 등 활동을 지원한다.

진로교육법 기본방향에 양성평등 가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목표제 추진을 강화한다. 여성군인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남녀공용 적용 지휘관 임무수행 자격요건을 마련한다. 여성교원 비율 등 양성평등 관련 주요지표를 대학

정보공시 항목에 반영한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돌봄, 학업, 훈련 등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을 추진한다.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든 경우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해 신규일자리를 창출을 독려한다.

정부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각 부처의 정책과제별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내년에는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연도별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간 발행계획에 따라 5월 24일자 신문 휴간합니다.

**간호사만의 특권, RNcard!!**  
간호사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한장에 담았습니다.

- 첫 결제 후 10,000원 상당의 연회비 지원!
- RNshop에서 첫 결제 시 5,000포인트 지급!
- 협회 관련 결제 시 20,000원 캐시백!

Nurseslife 닥스라이프 www.nurseslife.or.kr ☎ 1566-3137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신 경 림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등록번호 : 서울0406388

◇대한간호협회 (02) 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 2260-2571 FAX (02) 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 2260-2571 nursesnews.co.kr

# 장애인 1인당 진료비 전체 인구의 3.3배

장애인의 의료이용일수와 진료비가 전체 인구에 비해 높으며, 특히 1인당 진료비는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등 록장애인의 의료이용, 진료비 등을 분석한 '등록장애인 건강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71.6일로 2002년 42.3일에 비해 1.7배 증가했으며, 전체 인구에 비해 3.2배 높았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75.4일, 외래일수는 35.6일, 약국 방문일수는 17.4일이었다. 전체 인구 대비 각각 3.1배, 1.9배, 0.9배 높은 수준이다.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요양기관 방문일수는 신장장애가

147.2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신장애 137.6일, 뇌병변장애 103.6일 순이었다. 자폐성장애가 31.4일로 가장 적었다.

총 진료비는 10조5000억원으로 2002년 대비 8.1배 증가했다.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는 장애인 전체 인구 진료비의 16.2%를 차지하는 것이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38만9000원으로 전체 인구의 132만6000원에 비해 3.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65세 이상 장애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35만6000만원으로 전체 노인인구보다 1.5배 높았다.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진료

비 중 최고는 신장장애 2528만 9000원, 최저는 자폐성장애 122만원으로 20.7배 차이가 났다.

등록장애인의 다빈도질환 1순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었다. 이어 급성기관지염, 등통증, 본태성 고혈압, 무릎관절염,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순으로 나타나 장애 관련 질환뿐 아니라 만성 질환이 상위에 분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빈도질환 50순위 중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조현병이 52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뇌경색증이 276만4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2월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의 열악한 건강상태 개선 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혜진 기자 hjjo@

# 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당선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재선거에서 김철수 전 회장이 재당선됐다. 임기는 2020년 4월까지다.

5월 8일 치러진 재선거는 김철수 회장 후보가 단독 출마한 관계로 찬반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자투표와 우편투표가 실시됐다.

투표 결과, 총 투표수 9154표 중 찬성 7488표를 획득해 득표율 81.8%로 당선됐다. 리빙메트로 나선 안민호·김종훈·김영만 후보가 선출직 부회장으로 확정됐다.

김철수 회장은 "중단 없는 진단, 더 강한 치협"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며 치과계 7대 미제와 7대 공약을 발표했다. 7대 미제는 수가 정상화, 치과의사 전문의 경과조치 시행, 치과대학 정원 감축,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등이다. 7대 공약은 문케어 활용·보장성 강화, 협회 정관 및 규정 전면 개정, 회원들에게 힘이 되는 협회, 연구·개발을 통한 회원 권익 증진, 존경받는 치과의사상 확립 등이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 3개월간의



회무공백을 떨쳐내고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과부침주의 심정과 분골쇄신의 각오로 온몸을 던져 펼 것을 약속한다"면서 "회원 권익과 국민 구강보건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17년 4월 치러진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김철수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돼 취임했다. 이후 일부 치과의사들이 선거인명부 누락 문제로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올해 2월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치협은 재선거를 결정했고, 회장직은 지난 3개월간 공석이었다.

주혜진 기자 hjjo@

**www.RNjob.or.kr**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ONE-STOP SERVICE**

**의료기관의 구인 정보**  
**간호사의 교육·상담·취업을**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 ✓ **의료기관**  
무료 병원홍보, 구인공고, 취업연계  
재취업 실무훈련비 최대 100만원, 실습비 25만원 의료기관에 지급(간호사 1인 기준)
- ✓ **신규·재직 간호사**  
지속적 근무를 위한 경력개발 지원 교육
- ✓ **이직·유휴 간호사**  
상담사가 근로환경, 출퇴근거리까지 고려한 맞춤형 의료기관 취업 연계
- ✓ **간호대학졸업예정자**  
최신 의료정책 소개, 진로교육, 우수의료기관 취업정보 제공

대표번호 **1522-1755**

권역센터 연락처  
서울·강원 02-2268-2631~3 부산·울산 051-442-3824 대구·경북 053-756-8487 인천·제주 032-441-2926 광주·전북·전남 062-222-5025 대전·충북·충남 042-825-0749 경기 031-302-9504 경남 055-281-5522